투데이 칼럼

탈북 엘리트 북한 변화 촉구

정 복 규
논설위원

북한 외교관과 무역 일군 등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엘리트층의 연쇄 탈북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에 남은 가족 때문에 신분 공개를 꺼리고 침묵하던 과거와 달리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엘리트층 탈북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16년 한국을 거쳐 미국에 망명한 북한 노동당 39호실 어느 고위 관리 출신은 탈북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딸은 지난해 미 명문 아이비리그 소속 컬럼비아대 대학원에 진학한 데 이어 아들도 올해 같은 대학원에 합격해 글로벌 리더십 공공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자녀들이 명문대에 들어가서 기쁜 것보다는 미 주류사회에서 공부하고 인맥을 쌓으면서 "북한 주민들을 독재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을 향해 정진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흐뭇하다"고 말했다.

지식을 쌓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북한의 미래를 건설하는 주도적 역할, 역군이 되자는 장기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진학하는 대학원에는 여러 전직 고위관리와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포진해 있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력을 배울 좋은 기회다.

실제로 미국에 정착한 이후 이례적으로 거의 온 가족이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옹호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수시로 워싱턴의 전·현직 관리, 학자들을 만나 북한 지도부의 실체와 돈줄에 관한 실상, 제재 방안 등을 조언하고 있다.

두 자녀도 유엔 안보리 회의, 미한 정상회담 만찬, 미 의회 토론회 등 다양한 주류 행사에 초청돼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과 이란 출신 인사들은 주류 사회에 진출해 자국의 변화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하지만 워싱턴의 북한 출신은 사실상 전무하다.

북한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잘 제기하고 정책 제안을 하려면 본인 스스로 지식을 갖춰야 한다. 미국인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정책을 조언하도록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탈북하는 젊은 세대에 귀감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 유학 중 탈북해 한국에서 방송인, 소셜 인플루언서 등으로 활동 중인 어느 평양 엘리트 가정 출신은 최근 한국 국가보훈부 5급 사무관으로 첫 출근을 했다.

일부 탈북민이 통일부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례는 있지만 5급은 처음이다.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소식이 좀 더 많이 북한에 전해져서 탈북을 고민하거나 동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과 성공적 삶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북한 특권층에 대안적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다.

2019년 한국에 망명한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요즘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한국에 잘 왔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모든 탈북 엘리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해 해외 이민을 생각하는 탈북 엘리트 가정들도 있다. 편의점 등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하고 가정 파탄 위기에 놓인 사례들도 있다.

북한 엘리트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엘리트들도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10~20%는 도태하기 마련이다.

엘리트 출신 탈북민에게는 한국 국정원의 공작에 넘어가 망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아무리 남한 정보 당국의 공작이 있어도 탈북은 오롯이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엘리트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소식은 북한 고위층들에게 희망이다. 결코 절망적 소식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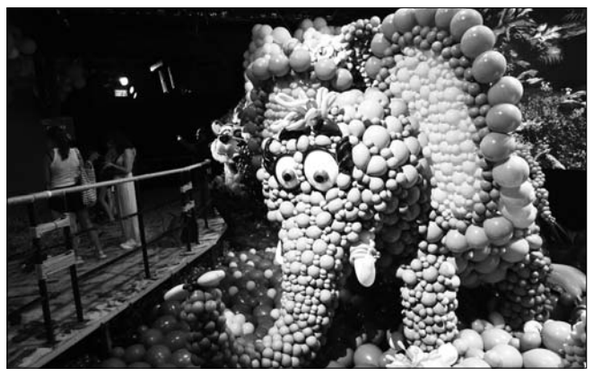
북한 간부들도 결국 진정한 자유가 없는 '고급 노예'에 불과하다. 북한 엘리트들에게 개혁개방은 특권의 상실이 아닌 새로운 기회다. 반동사상문화개혁법 등 김일성 정권의 정보 통제에 굴복하지 말고 외부 정보로 탄탄하게 무장한다면 향후 북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청년들 편지' 전달 받는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3일(현지시각)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두아르두 7세 공원에서 열린 제37회 세계청년대회(WYD) 모임에 참석해 한 수녀로부터 청년들이 쓴 편지 꾸러미를 받고 있다.

"친환경 풍선 전시회 보러 오세요"



지난 3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풍선 스토리' 전시회가 열려 방문객들이 코끼리 모양의 전시물을 구경하고 있다. 친환경 '풍선스토리' 전시회는 생분해성 풍선과 공기 주입식 아트 설치물로 비 환경파괴의 지속가능성과 창의성의 융합을 강조한다.

사 설

논란 이어지는 춘향 영정

최근 국악인들이 새로운 춘향 초상화에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악인들은 "이런 춘향이 두곤 춘향가 못 부른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현철 작가가 그린 새로운 춘향 영정은 비녀를 꽂은 쪽머리, 연두빛 저고리에 풍성한 다홍치마가 그려졌다. 새로운 춘향 영정은 남원시 예산 1억7천만 원이 쓰였다.

그런데 국악인들이 이 영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춘향이의 16세 실제 모습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청순한 10대 소녀의 모습을 원했던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국악인들은 남원시의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문화재 춘향가도 부를 수 없다며 다시 그릴 것을 요구했다.

춘향정신문화보존회 측은 봉안 직전 김현철 작가의 작품 설명을 들을 때에도 그 그림을 누구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봉안식을 했다고 비난한다.

봉안 후 많은 시민들의 표정은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국악인들의 성명서에는 신영희, 김일구 명창 등 국악인 4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기존 춘향 영정은 친일 작가 김은호 화백이 그렸다는 이유로 철거됐다.

이에 새롭게 춘향 영정을 그린 김현철 작가는 춘향가의 시대적 배경인 18세기의 출토 유물을 근거로 그 당시 복식을 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림 속 춘향이 머리에 꽂은 비녀도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 뿌리 모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정은 지난 5월 25일 남원 광한루원 춘향사당에 봉안되면서 일반에 공개됐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와 관광객 사이에선 춘향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시가 시민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이 많다.

잼버리 개영식 열탈진 속출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북 새만금에서 개막한 세계 잼버리에 비상이 걸렸다. 8월 2일 밤 개영식 도중, 참가자 가운데 80여 명이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잇따라 쓰러졌다.

119구급차가 출지어 섰고, 경찰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이 이동했다. 개영식 도중 수십 명이 쓰러지는 사고가 나자, 소방과 경찰이 긴급 출동한 것이다.

개영식이 열린 시각은 2일 밤 8시다. 4만 명 넘는 인파가 모인 상태로 행사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행사장이 있는 부안은 6일째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 열대야가 예고된 상태였다.

개영식이 한창이던 밤 9시 무렵 부안의 기온은 27.5도였다. 한자리에 모인 수만 명 인파의 열기가 더해져 실제 참가자들이 느꼈을 더위는 훨씬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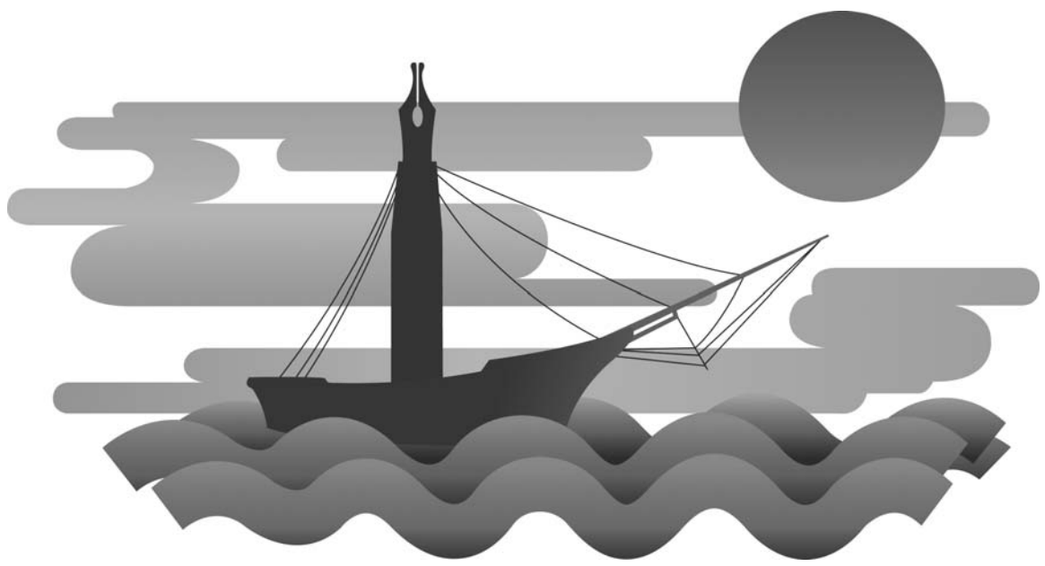
결국, 참가자 상당수가 어지럼증 같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기 시작했고, 3시간 만에 83명이 병원에 실려 갔다. 소방당국은 잼버리 조직위에 행사 중단을 요청했다.

경찰도 근처 경찰서 세 곳에 갑호비상과 전 직원 동원령을 내리고 사고를 수습했다. 온열 환자를 파악하고 다수 구급차가 출동해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잼버리는 시작부터 우려를 키웠다.

폭염이 지속하는데다, 바닷가라 습도가 70%를 넘나드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실제 3일 개영식 전까지, 이미 4백 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나왔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80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400명 이상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바깥 활동을 못 할 정도의 폭염이 오면 5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등으로 대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폭염 경보 발효 땐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